

Untitled, 2023. Oil on wood panel. 160 × 260 × 4.5 cm (2 panels). Unique. Courtesy of the artist and Perrotin

Joaquín Boz

diffusion

Perrotin Samcheong

March 30 - May 26, 2023

Perrotin Seoul is pleased to open diffusion, a solo exhibition by the Buenos Aires based artist Joaquín Boz on March 30, marking his first exhibition with the gallery and in Asia. The exhibition showcases more than 10 paintings created on-site at Perrotin Samcheong gallery for two months.

HOW TO TRAVEL WITH PAINTINGS

Paintings travel. They often travel en masse, caged in delicate crates to keep them away from possible damages and other unexpected circumstances. The typical scenario is: Once paintings are completed in an artist's studio, they are ready to travel around. Unless the artist changes his mind to add or subtract anything to and from his creations, they are fossilized in their final forms.

Paintings travel with the standardized process. Condition reports, minute wrapping and packaging, and wooden crates, followed by unpacking with another round of condition reports, hanging, and returning to the crates for shipping. Professional art handlers take

호아킨 보스

diffusion

페로탕 삼청

2023년 3월 30일 - 5월 26일

페로탕 서울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호아킨 보스의 개인전 diffusion을 3월 30일 개최한다. 페로탕과의 첫 전시이자 아시아 최초로 소개되는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지난 두 달여간 페로탕 삼청 갤러리를 작업실 삼아 서울 현지에서 작업한 1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림과 함께 여행하기

그림은 이동한다. 때로 그림은 손상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섬세하게 제작된 상자에 들어가 한 번에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따른다. 일단 작가의 작업실에서 그림이 완성되고 나면, 그림은 여행에 나설 준비를 마친 셈이다. 작가가 작품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야겠다고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작품은 최종적 상태로 굳어진다.

그림은 표준화된 공정에 따라 이동한다. 컨디션 리포트, 세심한 포장지와 포장, 나무로 제작된 운송용 상자로 이동한 뒤에는 다시 한번 컨디션 리포트 작성과 함께 포장을 풀고, 벽에 걸고, 배송을 위해 다시 운송



Untitled, 2023. Oil on wood panel. 130 × 190 × 4.2 cm (2 panels). Unique. Courtesy of the artist and Perrotin.

care of most of the process. Temperature and humidity are under strict control to keep the precious creations in their original, pristine state. Under such intensive care, the paintings leave the artist's hands. Whether they are abstract or figurative, the process is more or less the same.

Joaquín Boz also travels. Unlike his paintings, however, he travels by himself and does not maintain the supposedly pristine, untouched state. He changes as he navigates through different destinations while maintaining his art-making practice. Often from Buenos Aires and sometimes from other cities, he takes passenger flights, more or less the same as other artists. Yet, one thing distinguishes from most of his colleagues: He travels ahead of his paintings.

His paintings most often do not travel from his studio in Buenos Aires, art storages, or galleries elsewhere to their destinations. In these instances, the artist travels ahead of his works and arrives before them. When do the artworks arrive then? Indeed, they do not depart from anywhere but from the artist's psyche. And he travels with some of his handy creative tools, including his accustomed painting knives. Once he arrives at the destination, he practices through his muscle memory. The works then manifest through certain shapes, colors, and textures, which are to be accumulated and evolve through his many travels. In this sense, they arrive after the artist, through the artist.

As such, Joaquín Boz travels in time. And such a way of working is a highly analogue mode of production given how convenient it is now for anyone to create anything. We have been witnessing an ever-accelerating cycle of creation and consumption where everything quickly falls into oblivion in the vortex of too many things even to recognize at the same time. Under this regime, creative efforts are often standardized and produced in forms that can be easily shipped to anywhere in the world with proper zip codes. Certain artworks are even created out of thin air, based on algorithms to generate images with pre-determined elements in a set number of combinations. Such works are created in an atemporal vacuum, defying our shared experience of space and time.

상자에 들어가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의 대부분은 예술품 운송 전문가들이 담당한다. 소중한 작품을 원래의 순결한 상태로 지키기 위해, 온습도 역시 엄격히 관리된다. 그림은 이와 같은 집중적인 관리를 받으며 작가의 손을 떠난다. 이 과정은 추상과 구상화를 막론하고 거의 동일하다.

호아킨 보스 역시 이동한다. 하지만 자신의 그림과 달리, 그는 스스로 이동하며 태초의 순결한 상태를 유지하지도 않는다. 보스는 작품 창작을 지속하는 동시에 다양한 목적지를 탐색하며 변화한다. 종종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출발지 삼거나 다른 도시에서 출발하기도 하며, 다른 예술가들과 다를 바 없이 일반적인 여객기를 탄다. 그러나 동료 예술가들과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보스는 자신의 그림보다 먼저 이동한다.

그의 그림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스튜디오나 다른 곳에 있는 미술품수장고, 갤러리에서 출발하지 않을 때가 많다. 이러한 경우, 작가는 자신의 작품보다 한 발짝 먼저 이동해 목적지에 도착한다. 그렇다면 작품은 대체 언제 도착하는가? 보스의 그림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그의 정신을 출발지 삼는다. 그는 손에 페인팅 나이프를 비롯한 익숙한 창작 도구와함께 여행한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는 몸이 기억하는 바를 구현해낸다. 그의 작품은 이를 통해 특정한 형태와 색상, 질감으로 구현되며, 이는호아킨 보스가 영위하는 많은 여행과 이동을 통해 축적되고 진화하게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보스의 작품은 그가 도착한 뒤에 도달하며, 그를통해 나타난다.

이처럼 호아킨 보스는 시간 안에서 이동한다. 이러한 작업 방식은 무엇이든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오늘날의 환경에서는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창작 방식이다. 현재 우리는 한 번에 인식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것들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모든 것이 급속도로 망각의 늪에 빠지는 창조-소비의 사이클이 점점 가속하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틀 아래 놓인 창조적 작업들은 표준화되어 우편 번호가 달린 주소라면 전세계 어디든 쉽게 운송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어떤 작품은 알고리즘으로 미리 정해둔 요소를 조합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기도 한다. 이는 우리가 공유하는 시공간적 경험을 무시하는 탈시간적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진다.



Untitled, 2023. Oil on wood panel. 180 × 160 × 4.5 cm. Unique. Courtesy of the artist and Perrotin.



Untitled, 2022. Oil on wood panel. 46 × 55.3 × 5 cm. Unique. Courtesy of the artist and Perrotin.

Joaquín Boz takes up space and time. For the exhibition in Seoul, Boz once again travelled all the way to the city. He turned the gallery into his temporary workshop for a prolonged period of a few weeks leading up to the exhibition. There, he continued his time-consuming, analogue practice with abstract, indeterminate shapes, spontaneously adding and subtracting elements until he settled a sense of completion in each composition. Created *en masse*, the paintings speak to the artist's evolution of accumulated experiences in time. They are created on-site, but they are not site-specific *per se*. They travelled with the artist, and they are traveling with him.

What one might discover in Boz's travelling with his work is that there is a certain level of repetition. Repetition, not in the sense of repeating the leitmotif but as a mode of maintaining the existence in ever-changing acceleration of everything. Is there a pattern in his seemingly repeated figures, shapes, signs, colors, and even textures on the wood panel? Even if there is no pattern, one might eventually find one by the law of nature where humans are bound to generate patterns out of the most random occurrences of the world (There have been countless occasions where people witnessed the face of Jesus on cloth, in clouds, and even on milk foam!).

If certain deep learning models and generative AI, such as Stable Diffusion or Midjourney, learn 'enough' visual data of Boz's works since the beginning of his practice, some patterns that are not evident to our human eyes might be turned into exact formulae with a touch of added randomness. Yet, as much as they might be a result of complex calculation even beyond our understanding, they cannot be the ones that take up space and time through the artist, with the artist. If Boz's works are to be fed into a learning machine, images 'created in the style of Joaquín Boz' will be presented as a result of calculated patterns of repetitions instead of inviting us to go against the instinct of finding patterns.

Going back to Boz's paintings, which came a hard way to the exhibition through a laborious on-site creative process, they call for an effort not to see what emerges when we are automatically drawn to our embedded nature of pattern recognition. They ask us to see what is removed from the exhibition space, namely the artist's spending of time on-site and his very analogue manner of traveling with his paintings. As our view of his works at this time is limited to the very works presented in the exhibition, there might really be an evident pattern of repetition in the bigger body of his works to be accumulated in the coming years.

호아킨 보스는 시공간을 점유한다. 서울에서의 전시를 위해, 그는 다시한번 직접 이동하여 서울에 방문했다. 전시를 앞둔 몇 주간은 갤러리를 임시 작업실로 활용하기도 했다. 여기서 그는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형태 각각이 완성에 이르렀다고 느낄 때까지 시간을 소진하고 손을 타는 방식으로 작업을 이어 나갔다. 동시에 만들어진 이 그림들은 시간을 통해축적된 경험의 진화를 이야기한다. 특정한 장소에서 창조되었지만, 장소특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 그림들은 작가와 함께 이동했고, 지금도함께 움직이고 있다.

누군가는 보스의 작품에서 어느 정도의 반복을 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주제를 되풀이한다는 의미에서의 반복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가속하는 상황에서 작가 자신의 존재를 지키는 양태로서의 반복이다. 나무로 짠 그림 표면에서 마치 반복되는 듯 보이는 형태와, 모양, 기호, 색상, 심지어 질감에 어떤 패턴이 존재하는 걸까? 특정한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가장 무작위한 현상에서도 패턴을 인지하는 자연 원칙에 의해 어떤 패턴을 발견하고 말지도 모른다 (옷감, 구름, 심지어 우유 거품에서 예수의 얼굴을 목격한, 수 없는 사례들을 생각해보라!).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저니'와 같은 딥러닝 모델과 생성 AI가 보스의 초기 작업부터 '충분한' 시각 데이터를 학습한다면, 인간의 눈에는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어떤 패턴에 무작위성을 가미한 정교한 공식이 도출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복잡한 계산의 결과물일지언정, 작가를 통해, 작가와 함께 시공간을 점유할 수는 없다. 보스의 작품을 스스로 학습하는 기계에 입력한다면 패턴 인식이라는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대신 '호아킨 보스 스타일로 생성한' 반복된 패턴의 결과물인 어떤 이미지가 출력될 것이다.

현장에서의 쉽지 않은 창작 과정을 거쳐 전시에 이른 보스의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그의 그림은 인간이 패턴 인식이라는 본능에 자동적으로 끌려갈 때 두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않으려 애쓰는 노력을 촉구한다. 그의 그림은 전시 공간에서 소거된 것, 즉 작가가 현장에서 보낸 시간과 그가 자신의 그림과 함께 이동하는 지극히 수고로운 방식을 사유하도록 우리에게 말을 건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전시를 통해 보여지는 작품에 국한되어 있지만, 어쩌면 앞으로 쌓일 그의 작품들에는 명백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존재할지도 모른다.

Yet, what we do learn from Boz's elusive paintings is not really this quantitative approach to his practice. What we learn is how an artist maintains himself, how he travels with his paintings, how he often arrives before them, and how we can stand against our all-encompassing nature of finding comprehensible representations or patterns, even from the most-random occurrences of the world.

Jaeyong PARK

그러나 그의 작품에 대한 정량적이고 산술적인 접근은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는 보스의 그림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작가가 스스로를 어떻게 유지해나가는지, 그가 자신의 그림과 함께 어떻게 여행하는지, 어떻게 자신의 그림보다 앞서 목적지에 도착하는지, 또한 가장 무작위한 사건에서조차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재현이나 패턴을 찾으려는 우리의 본성에 어떻게 맞설 수 있는지. 호아킨 보스의 그림을 보며 깨닫게 되는 건 바로 이런 점들이다.

박재용

About the artist

Joaquín Boz (Argentine, b.1987) creates earthy-colored abstract paintings that rely on his physical energy, careful scrutiny and patient refinement. He spreads, scrapes, and pushes oil paints across wood panels with his hands, creating various textures and gestures that leave behind a record of his physical presence. He uses an array of undulating loops, staccato scratches, and calligraphic marks to flirt with identifiable forms without allowing them to coalesce into recognizable images. When he is not applying paint, he is wiping it away.

Every painting exhibits the presence of countless discrete decisions and organic networks of marks that record the artist's intimate and pointed conversations with his materials. He is equally comfortable making works as large as ten by thirty feet and others as small as eleven by thirteen inches. Regardless of size, the paintings are composed of anti-heroic gestures that celebrate the potential of touch and the humble, earthbound nature of material things.

작가 소개

호아킨 보스(1987년생, 아르헨티나)는 신체적 에너지, 깊은 숙고와 절제된 세련미에 기반하여 대지(earthy)의 색으로 추상화를 그려낸다. 나무 판넬 위에 유화 물감을 손으로 뿌리고, 긁고, 밀어내면서 다양한 질감과 제스처를 만들어내며 작가의 물리적 존재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 그는 율동적이면서도 간결하며, 대담한 선형의 터치들을 유희적으로 병치하여 비구성적 화면을 만들어낸다. 물감을 칠하는 대신 닦아내기도한다.

모든 회화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판단들을 담고 있으며, 그 재료와의 긴밀하고 신랄한 대화를 내포하는 흔적들 간의 유기적 관계가 드러난다. 가로 9미터, 세로 3미터의 대작부터 28센티와 33센티의 소품까지 다양한 크기의 작품을 그려내는 데에 익숙하다. 이처럼 그의 회화는 작업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화폭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잠재성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소한 것들을 전면에 드러내는 반(反)영웅적인 몸짓이다.

More information about the exhibition >>>